




 금융위원회	<div style="text-align: center;"> <h1>보 도 자 료</h1> </div>				
 금융감독원	보도	2021.2.26.(금) 14:00부터	배포	2021.2.26.(금)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석 란(02-2100-2850)	담 당 자	김 미 정 서기관(02-2100-2851) 이 지 호 사무관(02-2100-2854)
	금융위원회 금융지원과장 신 장 수(02-2100-1670)		홍 재 선 사무관(02-2100-1672)
	한국은행 자금시장팀장 김 정 현(02-759-4473)		박 주 하 차장(02-759-4582) 정 승 환 과장(02-759-457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02-3145-8020)		금융거래지표감독반장 윤 석 우(02-3145-8036)
	은행연합회 자금시장부장 김 경 민(02-3705-5390)		윤 현 진 부부장 (02-3705-5398)
	금융투자협회 지표관리사무국 부장 강 성 열(02-2003-9290)		이 동 하 차장 (02-2003-9292)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부장 박 찬 수(051-662-2720)		정 종 섭 팀장 (051-662-2721)
	예탁결제원 청산결제부장 백 상 태(051-519-1710)		배 종 혁 팀장 (051-519-1408)
	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남 종(02-3705-6266)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백 인 석(02-3771-0633) 장 근 혁(02-3771-0825)		

제 목 : 무위험지표금리(RFR)로 "국채·통안증권 RP금리" 선정

- 금융시장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1 부위원장 모두발언

-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금일(21.2.26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35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겸 「제3차 지표금리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융리스크 대응반」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의 연장 필요성 및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비은행 금융기관 부동산금융 동향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지표금리개선 추진단*」에서는 무위험지표금리 최종 선정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 '19.6월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에 동참하고 국내 지표금리의 신뢰성,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한은 공동설립(상세 개요 <참고2> 참조)

- 금년말 이후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금리와 관련된 대응경과를 금융업계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1.2.26.(금) 14:00 ~ 15:00 / 영상회의
-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기재부) 국제금융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거시건전성감독국장, 은행감독국장, (한은) 금융시장국장, (관계기관) 거래소, 예탁원, 협회, 연구원 등

2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일 첫 백신접종이 시작된 만큼 하루빨리 경제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넘어서 선도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금융백신”이 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잠재리스크) 금융시장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등 주요국에서 장기금리가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지원) 코로나19 재확산, 경제회복 지연 등을 고려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까지 재연장하는 데에 금융권이 뜻을 모았으며, 금융대응조치를 질서있게 정상화해나가기 위한 준비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리보 산출중단) '22.1월 이후 리보금리 산출중단이 예상되므로 금융업권이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특히, 금년 3분기까지 적용금리를 리보에서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4분기 이후로는 리보연동 계약의 신규체결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RFR) 시장참여자 투표 등을 거쳐 RFR로 “국채·통안증권 RP”가 최종선정된 만큼, 금융업권의 RFR 연동 채권발행 및 파생거래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3 주요 논의내용

1. RFR 선정결과 및 활성화 방안 [별첨 참고]

◆ 해외사례 조사, 시장참가자 그룹 토론 및 투표 등을 거쳐
“**국채·통안증권 RP금리(익일물)**”가 **무위험지표금리**로 최종선정

- **(추진배경)** 리보* 담합 스캔들(12년)을 계기로 주요국은 호가가 아닌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 LIBOR :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 은행간 단기거래에 사용되는 호가금리의 평균)

** RFR : Risk-Free Reference Rate (美 SOFR, 英 SONIA, 日 TONA 등)

- 국내에서도 국제흐름에 부응하고 CD금리의 신뢰성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RFR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19.6월~).

- **(주요경과)**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산하 「대체지표 개발 작업반」을 통해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외사례 조사, RFR 선정요건 마련 등을 추진해왔으며,

- 온라인 공개설명회(20.11월), MPG(시장참가자 그룹) 투표(3차례) 등을 거쳐 “**국채·통안증권 RP금리**”가 RFR로 최종선정되었습니다.

* Market Participants Group: 은행 13개사, 증권사 9개사, 자산운용사 3개사, 증권금융

* 최종투표 결과 : (은행·증권차입 콜) 4표 (은행4)

(국채·통안증권 RP) 22표 (은행9, 증권9, 자산운용3, 증권금융)

※ (RP 선정사유) RP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금융기관 자금조달 여건에 따라 변동되는 금리 특성,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이 고려

- **(RFR 역할)** 금번 선정된 RFR은 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CD금리 대신에 활용될 수 있으며,

- CD금리의 비상시 대체금리(Fallback Rate)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CD연계 금융계약 규모(조원, '20.3분기 기준) : [파생] 6,810, [대출] 200, [채권] 28.7

- **(향후계획)** 이르면 '21.3분기중 기존 RP금리를 공시하던 예탁결제원에서 RFR 공시를 시작할 예정이며,

- ①시장정착을 위한 RFR 활성화 방안 및 ②RP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겠습니다.

* ① 거래소 RFR 선물 상장('21.下), 정책금융기관 RFR 기반 FRN(변동금리부채권) 발행 (산은, 기은 등 '22년중 발행시작 → '23년중 전체 FRN 발행물량 10% 목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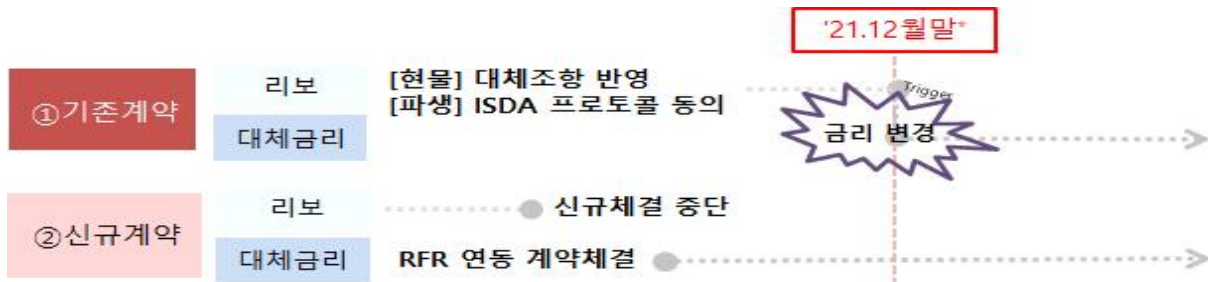
② RP거래 투명성 제고 및 전자거래시스템 도입, 시장 모범관행 마련 등

2. 리보금리 산출중단 대응방향

◆ '22.1월부터 리보 산출중단 예상 ⇒ 지표금리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고, 리스크 평가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 (금리전환) '22.1월부터 리보금리 산출이 영구 중단될 예정*으로, 기존·신규계약의 준거금리를 대체금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일부 USD 리보(익일, 1·3·6·12개월물)는 '23.6월말까지 산출지속 검토중
- 기타 만기 USD리보 및 GBP, JPY, EUR, CHF 리보는 '21년말 산출중단 확실시



① (기존계약) 채권, 대출 등 현물상품의 경우 리보 산출중단시 사용할 금리를 미리 '대체조항(Fallback Provision)'에 반영해두어야 합니다.

- 금리전환에 따른 계약가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당국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고안 등을 참고하여(美 ARRC 등) 합리적으로 대체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 체결 파생상품의 경우 ISDA(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의 프로토콜에 계약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없이도 대체조항이 반영이 가능합니다.

② (신규계약) 4분기 이후로는 리보연동 계약을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리보를 사용한 경우 계약서에 대체조항을 미리 포함해두어야 합니다.

□ (소비자 보호) 특히,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각 금융기관이 대고객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독려하는 한편('21.2Q 업권별 설명회 개최 등),

- 상장협, 상공회의소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금리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응현황 점검) 업권별 리보 익스포저, 리보중단 대응계획(시스템 전환 등) 및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 체계적·안정적 금리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조항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외사례 등을 상세하게 안내·제공할 계획입니다.

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4.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 (기존 프로그램) 4.5조원 +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프로그램) 0.3조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5.9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②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 2.19일까지 274.3만건, 296.7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52.8만건)-소매업(42.9만건)-도매업(32.8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51.2조원)-도매업(38.3조원)-섬유·화학 제조업(21.4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83.1만건, 122.4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91.2만건, 174.3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41.7만건/147.6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29만건/147.9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1>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①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목표금액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7일~) * 기은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16.4조	14.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5.25일~) 기존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10.0조	4.8조
	7.0조	4.5조
	3.0조	0.3조
②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목표금액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3.16일~) * 수은·산은·기은 금리·한도 우대 대출 	21.2조	28.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4.1일~) * 수은·신보 수출기업 우대 보증 	7.9조	7.0조
③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목표금액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사 유동성 지원(3.24일~) * 한은 RP 매수, 증권금융 대출 	5.0조	10.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3.30일~) * 산은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6.1조	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신용 회사채·CP매입 지원(7.24일~) 	20.0조	2.6조 (26,08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피해 P-CBO(4.1일~) 	11.7조	3.8조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4차 비상경제회의(4.8.) 발표)

-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4.29일~) : 12,298건 (988억원)
-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4.29일~, 접수기준) : 9,279건 (3,713억원)

□ 금융권 지원실적 집계(업종별·지원유형별)(단위 : 건, 원)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업	기계·금속제조업	운수·창고업
52.8만건 16.7조원	42.9만건 20.1조원	32.8만건 38.3조원	17.8만건 51.2조원	13.6만건 10.5조원
여행레저업	섬유화학 제조업	숙박업	자동차 제조업	기타
9.5만건 5.3조원	7.8만건 21.4조원	3.2만건 6.7조원	3.1만건 17.1조원	90.7만건 109.5조원

구 분 ¹⁾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제2금융권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	신규	47.1만	46.2조	96.1만	55.3조	605건	584억	143.3만	101.6조
	만기연장	8.6만	41.6조	32.9만	92.5조	3.5만	1.2조	45만	135.3조
보증	신규	39.8만	20.9조	-	-	-	-	39.8만	20.9조
	만기연장	46.2만	39조	-	-	-	-	46.2만	39조
합 계 ²⁾		141.7만	147.6조	129만	147.9조	3.6만	1.3조	274.3만	296.7조

- 1)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시중은행 대출실적에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①, ② 포함
 2) 기타 금융지원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 제외

-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맞추어 지표금리 개선 및 무위험 지표금리(RFR) 개발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2019년 6월 협의기구인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출범
- 추진단 산하에 ‘대체지표개발 작업반’(간사 한은), ‘제도개선 작업반’(간사 금융위), ‘시장정착 작업반’(간사 금투협), ‘리보금리 대응TF’(간사 은행연) 등 4개 반이 설치
- ① 대체지표개발 작업반 : RFR 개발 및 공시
- ② 제도개선 작업반 : 금융거래지표법 시행 준비 및 CD 지표물 발행 촉진
- ③ 시장정착 작업반 : CD금리 산출방법 개선과 RFR 활성화
- ④ 리보금리 대응TF : 민간의 LIBOR 중단 대응 지원 등을 담당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조직 현황

